

국어영역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독서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실전문제



방법은 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독서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글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주제 작성 연습을 위한 빈 칸 넣기 문제 제시
- 독서와 직접 관련된 논리학(개념, 추론방식, 정의, 오류)도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서/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서/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독서 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엔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3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3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절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국어 영역 **독서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 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지문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주제의 형성 원리, 조직의 과정, 논지 전개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 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올림



차례

제1부 독서

OE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0

1. 논지 전개 · 진술 방식과 주제 38

유형모의1-1 한국 미술사의 특수성, 문명대	67
유형모의1-2 유재론(遺才論), 허균	71
유형모의1-3 옛 그림의 원근법, 오주석	75
유형모의1-4 한국 전통 음악의 미의식, 현행복	78
유형모의1-5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헨리 페트로스키	82
유형모의1-6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임영태	85

2. 문단의 성격과 관계 89

유형모의2-1 사람과 파리는 닮은꼴, 조홍섭	105
유형모의2-2 한국 근 · 현대사 역사학의 흐름, 한영우	108
유형모의2-3 가이아 - 사이버네틱스, 러브록	111

3. 어휘의 갈래 114

유형모의3-1 도덕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손봉호	118
유형모의3-2 국어의 순화, 김석득	121

4. 어휘의 문맥적 · 함축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의 관용구나 속담, 또는 성어 124

유형모의4-1 과학과 윤리, 김용정	138
유형모의4-2 말, 세상을 그려 낸 그림, 심재기	141
유형모의4-3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F. 카프라	144
유형모의4-4 북한의 말과 글, 남성우	148





5. 제시된 내용의 사실적 파악 152

유형모의5-1 현대 미술의 이해, 강미정	171
유형모의5-2 양성성에 관하여, 정진경	175
유형모의5-3 국사 교육이 죽어간다, 한영우	178
유형모의5-4 현대 사회의 의의, 고영복	182

6. 제시되지 않은 내용 미루어 알기 186

유형모의6-1 전통문화와 대중 문화, 이상희	208
유형모의6-2 여우와 신포도, 이어령	211

7. 관점 · 입장 · 태도 · 의도 알기 215

유형모의7-1 맨 처음 생명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로버트 사피로	227
유형모의7-2 무장동학당 포고문, 전봉준	230

8. 제시된 글에 대한 비판 234

유형모의8-1 한국을 국제 물류 거점으로, 송희연	246
유형모의8-2 사람의 어제, 오늘 내일, 레원 리키	251
유형모의8-3 한자를 쓰는 것이 왜 문제인가, 송영상	254

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258

유형모의9-1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291
유형모의9-2 박수근의 예술, 박용숙	295
유형모의9-3 왜 현대인은 병에 잘 걸리는가, 이인식	299





제2부 논 리

1. 개념	304
유형모의1-1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정범모	314
유형모의1-2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간 과학, 박성룡	317
2. 정의	320
유형모의2-1 네트로피 문명, 장희익	326
유형모의2-2 핫미디어와 쿨미디어, 마샬 맥루한	329
3. 추론 방식	332
유형모의3-1 권력의 이동, 앨빈 토플러	342
유형모의3-2 러시아와는 학제적 접근이 최적, 김영식	345
4. 전제 · 논거 · 논박 및 결론	349
유형모의4-1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 노웅희 · 박병석	364
유형모의4-2 언어와 민족 문화, 강신항	367
유형모의4-3 과학 윤리 · 생명 윤리, 송상용	371
5. 오류	374
유형모의5-1 엽기 신드롬을 부채질하는 것, 이인식	384
유형모의5-2 치도약론(治道約論), 김옥균	388





제3부 독서 · 논리 종합 실전모의

제1회 메밀꽃 필 무렵의 경제학, 박찬선	384
제2회 검의 고수엔 칼로 덤비지 말라, 송병락	395
제3회 지능, 남녀 따라 차이가 있나, 과학 동아	401
제4회 전통의 이해, 김태길	404
제5회 말과 생각, 허웅	408
제6회 북학의, 박제가	411
제7회 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상상력, 전영태	415
제8회 한국 연극과 마당극, 극예술연구회	420
제9회 환경 용어 남발하는 상품 광고, 이재란	423
제10회 나노기술이란 무엇인가, 뉴턴코리아 메가진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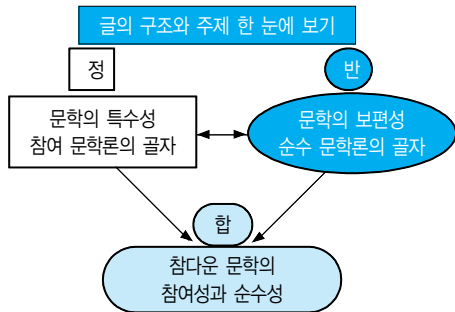
제4부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산문문학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모든 지문의 해설



1.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지문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의 구조와 논지 전개 방식, 주제가 형성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문단의 주제를 빈 칸으로 두어 주제 작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휘·클리닉

평소 어휘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수능이나 지문 이해에 꼭 필요한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제1부 독서 · 제2부 논리

-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 2 원리는 이렇다
- 3 방법은 있다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련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다. 제3부 독서 · 논리 종합 실천모의

독서와 논리를 종합하여 신경향·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함으로써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석적 글읽기의 방법

다음은 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글뿐만 아니라 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쓰기 영역을 해결하는 데도 좋은 지침이 되므로 각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읽고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1단계 무엇이든 관한 글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규칙들

- 1. 글의 종류와 제재에 따라 이론적인 글과 실천적인 글로 분류하라.
- 2. 글 전체가 무엇이든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라.(가주제)
- 3. 필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규정하라.(주제)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독서

2단계 글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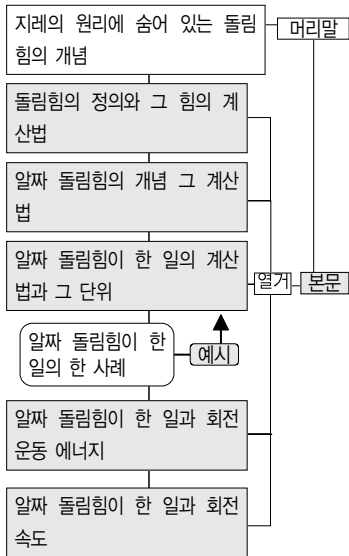
- 4. 필자가 사용한 기본 단어들을 해석하여 필자의 개념을 따르라.
- 5. 중요한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주된 요지를 파악하라.
- 6. 논리적 관련이 있는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논증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문장들로부터 논증을 구성하라.
- 7. 필자가 해결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판별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필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라.

3단계 지식을 전달해 주는 글을 비평하기 위한 규칙들

- A. 올바른 비평을 위한 기준
 - 8. 필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비판하라.
 - 9. 필자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
 - 10. 비논리적인 것(오류)을 지적하라.
 - 11. 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분석이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을 지적하라.
- B. 올바른 비평을 위한 유의 사항
 - 12. 글을 완전히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해한 다음 찬성, 반대 등의 태도를 표명하라.
 - 13. 주요 논점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 반론을 하지 말라.
 - 14. 비평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충분한 근거를 들고, 지식과 의견을 확실히 구별하라.

OE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A형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 \cdot m$ (뉴턴미터)이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 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가] 300 N의 힘으로 밀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 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 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 J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 지렛대의 원리에 숨은 돌림힘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휘·클리닉

•라디안 : 원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 해답 ⑤

17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 ④ 알짜 돌림힘과 감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 ⑤ 감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구제적 사례에 적용된 원리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라는 구절로 보아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 문

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① 알짜 돌림힘은 을의 돌림힘($200\text{N} \times 2\text{m}$)-갑의 돌림힘($300\text{N} \times 1\text{m}$)= $100(\text{N} \cdot \text{m})$ 인데 변화는 없다. ③ 문이 회전하므로 돌림힘은 평행이 아니다. ④, ⑤ 갑($300\text{N} \times 1\text{m}$)보다 을의 힘($200\text{N} \times 2\text{m}$)이 세게 가해지므로 알짜 돌림힘의 방향은 을의 힘의 방향과 같다.

✓ 해답

②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 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overrightarrow{OA}$, $\overrightarrow{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 B에 가해 주는 힘을 1N 으로 설정해서 ④의 경우를 계산해 보자.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4\pi \text{ J}(1\text{N} \cdot \text{m} \times 4\pi)$ 이다. 또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2\pi \text{ J}(1\text{N} \cdot \text{m} \times 2\pi)$ 이다. 따라서 4배가 아니라 2배가 된다.

● 오답 바꾸기

①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알짜 돌림힘이 0이 되어도 알짜 돌림힘이 물체의 회전 방향과 반대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③ 돌림힘에 반대 방향의 힘을 제거했으므로 알짜 돌림힘이 커져 회전 속도도 증가한다.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멈춤 상태가 되었다가 즉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점차 커진다.

✓ 해답 ④

[A형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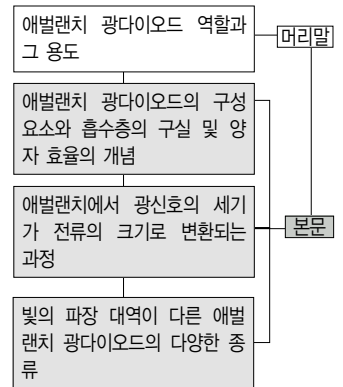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 nm*,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역할과 그 용도를 소개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나눠 그 역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광통신 : 영상, 음성, 데이터 따위의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통신.
- 광자 : 빛을 입자로 보았을 때의 이름.
- 대역 : 어떤 폭으로써 정해진 범위.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 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구절의 조건과 결과를 뒤집어 말하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③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광자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지 광자수 자체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다. ④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이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 **해답** ②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 ②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 ③ ㉠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 ④ ㉠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 ⑤ 흡수층에서 ㉠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양자 효율과 관련된 구성 요소는 흡수층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내용과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면 흡수층에서 들어오는 전자의 수와 충돌 이온화의 횟수는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 해답 ③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예비 실험 :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 nm 파장의 빛을 길이가 1 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nA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배 계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 역방향 전압은 110 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 ~ 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본 실험 : 동일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작동 조건을 하나씩 달리하며 성능을 시험한다. 이때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① 역방향 전압을 100 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② 역방향 전압을 120 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 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 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

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고 정답 찾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로 보아 작동 온도가 커지면 전자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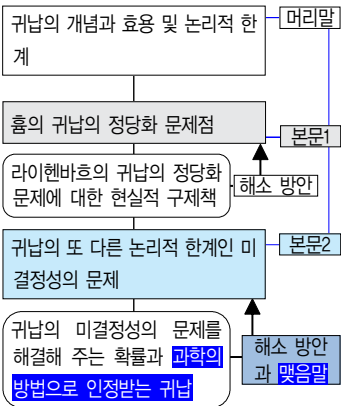
● 오답 바꾸기

①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 전압이 낮아질수록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증배 계수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구절과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로 보아 전압이 높을수록 약한 광신호를 강한 전기의 세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보기>의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A형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설들을 설명하여 귀납이 과학적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선험적 :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
- 구제책 : 구제할 대책.
- 개연성 :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22 읽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와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귀납의 개념과 효용 및 문제점, 둘째 문단 : 흄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점, 셋째 문단 : 라이헨바흐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제책, 넷째 문단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인 미결정성의 문제, 다섯째 문단 :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확률과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귀납.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귀납법의 논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⑤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미루어 알아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많은 관측 자료 즉 귀납의 사례가 아무리 많아져도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리는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 **오답 비루기** ②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자연의 일양성’은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해당하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①

24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도록 정답 찾기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라는 구절로 보면 라이헨바흐는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마지막 문단의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라는 구절에서 알아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라는 구절을 보아 논리적 판단의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구절에서 경험적 판단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 해답 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므로 <보기>의 사례를 일 반화한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을 것이나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에 10℃씩 상승한다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더라도 (ㄱ)과 (ㄴ)을 동등한 예측이라 생각할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보기>에서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라는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한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을 것이며, 이로부터 추론한 (ㄱ)과 (ㄴ)을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②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매년 10℃씩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ㄱ)이 (ㄴ)보다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③ 1년에 10℃씩 상승했다는 사례를 하나 추가하면 A는 1년에 10℃씩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B는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

을 것이나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에 10℃씩 상승한다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ㄱ)과 (ㄴ)을 동등한 예측이라 생각할 것이다.

✓ 해답 ⑤

2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폭폭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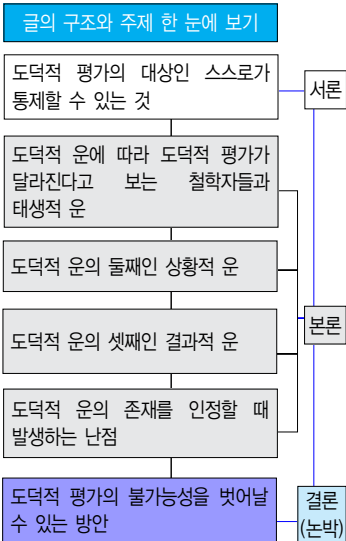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 관련된 구절인 '순환 논리에'라는 구절과 ㉠을 관련시켜 보면 ㉠은 추상적의 의미에 매립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혼란에 빠진 적군'에서도 '빠진'은 추상적인 의미인 '혼란'에 매립되어 버렸다는 의미이다.

● 오답 배리기 ②, ④ 둘 다 결핍되다란 의미이다. ③ 물리적으로 들어가다란 의미이다. ⑤ 뒤떨어지다란 의미이다.

✓ 해답 ①

[B형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걸땀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편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❶ 도덕적 운을 내세워 도덕적 평가의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박함으로써 도덕적 평가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발현 :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 통용 : 일반적으로 두루 씀.
- 부각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두 논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도덕적 운에 대한 ㉠의 논지는 둘째에서 넷째 문단에 드러나 있는데 태생적, 상황적 결과적 운 즉 도덕적 운을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글쓴이의 논지는 여섯째 문단의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문장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두 논자의 공통점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글쓴이는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결과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상식'도 부정하는 셈이다. ② ㉠은 운을 통제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③ ㉠은 성품과 관련하여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글쓴이는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품이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은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도덕적 운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해답** ⑤

18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neg$, $\exists$ ② $\neg$, $\forall$ ③ $\forall$, $\exists$
④ $\neg$, $\forall$, $\exists$ ⑤ $\neg$, $\forall$, $\exists$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관점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관점은 무지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인데 ㄱ과 ㄴ은 스스로 통제한 경우이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 **오답 바꾸기** ㄴ의 경우는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이고 ㄷ은 무지의 경우이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답** ①

19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사례에 대한 원리 적용이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의 사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 B 두 사람 모두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다고 판단할 것이며 통상 사람들이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는 것은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 드러난 태도처럼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라는 주장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의 주장이다. ③ 태생적 운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평하게 생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A, B 두 사람 모두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다고 판단할 것이다.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 경우 공평하게 생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해답 ①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③ ㉢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④ ㉣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 ⑤ ㉤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라는 구절에서 '부정하고'의 예외 규정이 '국한'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한정 의미의 의미가 된다. 참고로 '국한'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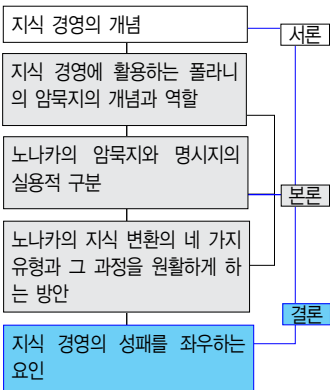
● 오답 바꾸기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사전적 의미를 추론해 보자. 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이라는 구절에서 ‘기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본질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② ‘거론’ 뒷문장의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아 거론은 ‘말하다’란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③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개입’은 ‘끼어들다’란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⑤ ‘정당하지 못하므로’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펼치는’ ‘정당하지 않다’란 의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 매 답 ④

[B형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지식 경영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에 활용하는 폴라니의 암묵지의 개념과 역할을 밝힌 뒤, 이를 활용한 노나카의 암묵지와 명시지의 실용적 구분을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내세우고 있다.

어휘·클리닉

- 체화된 :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 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된
- 수반 : 붙좃아서 따름.
- 숙련 : 연습을 많이 하여 능숙하게 익힘.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가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

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과정과 주제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도록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지식 경영의 개념, 둘째 문단 : 폴라니의 암묵지의 개념과 역할, 셋째 문단 : 노나카의 암묵지와 명시지의 실용적 구분, 넷째 문단 : 노나카의 지식 변환의 네 가지 유형과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다섯째 문단 :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이다.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에 대한 두 사람의 논의와 지식 경영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②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논의는 없다.

✓ 해답 ③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낸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노나카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는 것은 잘못이다.

● **오답 비루기** ① 폴라니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은 암묵적 지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도 암묵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② 폴라니의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의미이다. ④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의미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⑤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내용과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 **해답** ③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

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③에서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은 명시지이고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암묵지이므로 ③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된 것이므로 '공동화'에 해당한다. ②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은 명시지에 해당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에 해당하므로 '연결화'의 사례이다. ④ 교재는 명시지에 해당하고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암묵지에 해당하므로 '내면화'의 사례이다. ⑤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한 것은 암묵지에 해당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된 것이므로 '표출화'에 해당한다.

✓ **해답** ③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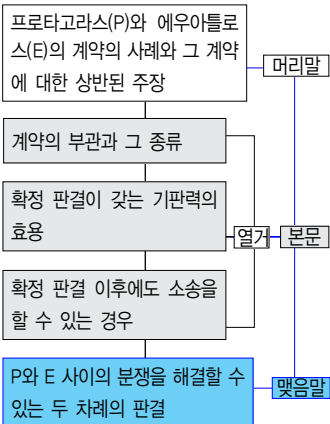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F사는 명시지만 중시하고 암묵지를 확대하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은 명시적 지식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것도 명시적 지식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라는 내용과 같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못된다.

● **오답 바꾸기**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암묵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③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암묵지의 전수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암묵지에 대한 보상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암묵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②

[A/B형 공통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㉔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㉕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㉖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④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난제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계약의 사례와 그 계약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들을 설명한 뒤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변론술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술.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승소는 패소의 경우가 있으므로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 오답 비루기

②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하였으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는데 그 공통점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③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으며 해제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상 유지되는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고 한 것은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판력과 관련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애답 ①

26 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여 패소하면 E가 승소하게 된다. E가 승소하게 되면 두 번째 소송에서 또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라는 계약에서 조건이 만족되었으므로 승소하게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E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수강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E의 패소를 의미하므로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④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패소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 애답 ③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기한인 2015년 2월 15일이 되기 전인 같은 해 11월 30일 전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것은 이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이므로 불가능하다.

● **오답 비루기** ① 확정 판결이 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2015년 11월 30일이 기한이 되므로 기한 이전에는 을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기한이 지나면 기판력이 없어지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⑤

28 문맥상 ㉔~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 수취하였다
- ② ㉔ : 부가하는
- ③ ㉔ : 지시한다
- ④ ㉔ : 형성되었을
- ⑤ ㉔ : 경유하여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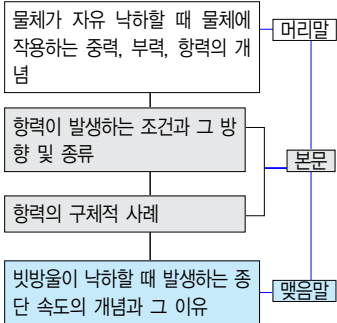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㉔와 관련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이라는 구절과 ‘부관’의 ‘부’라는 글자를 볼 때 ‘덧붙이는’은 추가로 보탠다는 의미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수취는 물건을 받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호칭한다는 의미이다. ④ 발생하다란 의미이다. ⑤ 특정 장소를 지나간다는 의미이다.

✓ **해답** ②

[B형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물체가 유체 속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힘의 종류와 그 개념을 밝히고 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다음 빗방울이 낙하할 때 발생하는 중단 속도의 개념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유체 :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평형 :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해 있음.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

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 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는데 동전의 부피가 변하지 않고 액체의 밀도도 일정하므로 부력도 동전 부피에 해당하는 액체 부피만큼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②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내용과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가속도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쇠 막대의 부피가 일정하므로 부력도 일정하게 된다.

✓ **해답** ④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윗글의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상승할 때에도 낙하의 원리는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의 부력은 부피와 밀도에 비례하는데 밀도가 높은 쪽이 부력이 크다. 부력에 상응하는 항력이 작용해야 종단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쪽이 항력이 더 크다.

● **오답 바꾸기** ①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는 항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은 모두 0이다.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가 B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A의 속도가 B보다 크다. 윗글의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력은 변함이 없고 부력도 부피가 일정하므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 차이도 변함이 없다. ④ 속도가 줄어들어 종단 속도가 되려면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게 항력이 점점 커져야 한다.

✓ **해답** ⑤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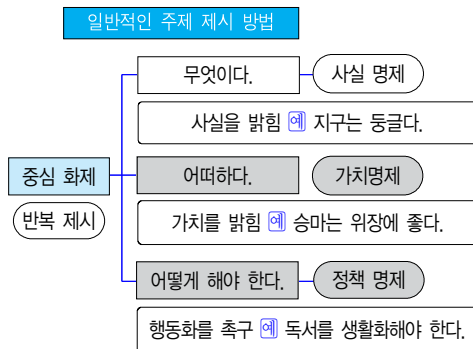
화제 항목을 일정한 흐름과 짜임에 맞도록 배열한 방식을 논지 전개 방식이라 하고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 글을 조직하는 일정한 원리를 진술 방식이라 하는데,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의 원리나 그 갈래, 동일한 방식을 쓴 글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앞에서 말한 논지 전개 방식에 의한 결론이 곧 주제가 되는데 주제란 필자가 제재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 평가를 내려 집필 동기 및 통일적인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즉, 핵심이 되는 의미 또는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알아내는 문제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문제, 그리고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글의 일반적인 주제 제시 방법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는 중심 화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형태로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중심 화제를 찾고 이에 대하여 무엇이다,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제문으로 잡으면 된다.

예문보기

창조를 흔히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냄이라고 한다. ‘무(無)’란 ‘없음’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여도 없음에는 우선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무가 하나요, 그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그 어떤 무엇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여의 무가 또 하나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아닌 재물건이건 인간이건과의 관계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거나와, 이 점을 두고서라도 인간이 하는 창조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박종홍, 새 역사의 창조

▶ 창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화제에 대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2) 논지 전개 방식과 주제 제시 방법

① 추론 방식에 따라

- ① 연역적 방식 : 추상적 진술인 대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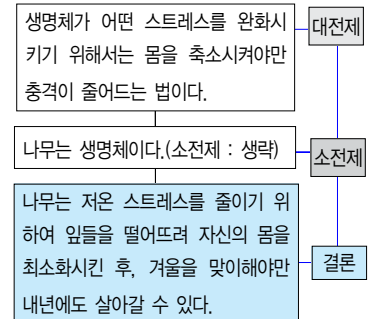
일 년 내내 녹색의 잎을 가지에 매달고 있는 상록침엽수들은, 겨울철에는 토양 온도가 낮아서 뿌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햇볕에 비치면 잎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을 증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나무의 잎은 겨울철 증산 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두꺼운 큐티쿨라 층을 가지고 있고, 기공이 잎의 요면에 들어가 있으며, 햇물관의 구조도 수분 통로가 증산이 억제되도록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솔잎과 같이 잎이 두껍고 끈적끈적하거나, 회양목이나 동백나무처럼 두껍고 작은 잎을 가진 상록수들은 물의 씹씹이가 작아서 겨울철 햇볕 아래서도 수분의 지출이 적어 살아갈 수 있다.

생명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몸을 축소시켜야만 충격이 줄어드는 법이다. 고양이가 점프하여 착지할 때에도 몸을 움츠려 충격을 최소화한다. 권투 선수도 움츠른 상태에서 맞을 때 충격이 적다. 선인장은 건조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계속 줄여 나간 끝에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이다.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

— 권성환, 겨울잠을 준비하는 식물들

❶ 윗글의 첫째 문단이 상록침엽수의 겨울을 나기 위한 잎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둘째 문단의 중심 화제도 나무로 잡아야 한다. 즉 생명체와 관련된 일반적 진술로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여 나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문단의 주제문은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② 귀납적 방식 :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시켜 **보편적 원리를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었다. 누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웃과 하느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자는 이른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석가는 대자대비, 곧 자비심을 발휘하는 삶만이 열반에 든다고 가르쳤다. 그 밖의 많은 성현과 위인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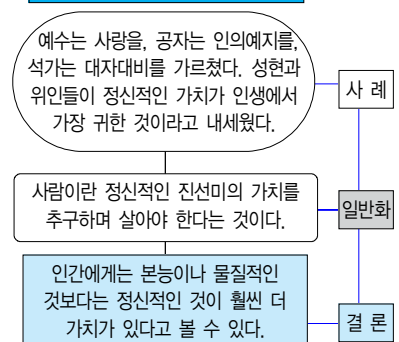
곧 그들은 사람이란 동물과는 달리 물질의 욕구나 본능의 충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정신적인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장인용, 「인생과 가치」

❶ 예수, 공자, 석가 등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㉔ 변증법적 방식 : 정(正)과 반(反)을 대립시키고 **정·반의 합(合) 즉, 절충안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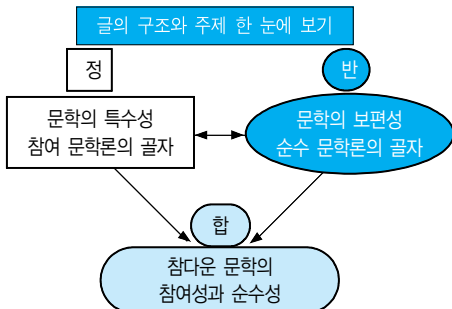
문학이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때 문학도 필연적인 역사성을 떠날 수 없다. 왜냐 하면, 각 사람이 사는 환경은 매순간마다 특수한 것이며, 거기서 빚어지는 체험도 구체적이며 따라서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문학 작품도 특수성을 떨 수 밖에 없고, 특수성을 벗어나는 경우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추출될 것이다.

문학 작품이 특수하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극히 개별적인 활동의 결과이면서 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한 문학 작품은 그것이 쓰여진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한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으며 호소하기 마련이다.

참여 문학론의 골자는 문학의 시대와 사회성을 강조한다. 한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을 넘어 시대와 사회라는 비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 주장은 완전한 의미에서 문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수한 역사, 사회, 그리고 특수한 주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지는 순수 문학 이론과 맞서서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삶의 문제를 다루되, 그러한 문제는 비록 구체적인 사회와 시대를 떠난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삶의 문제, 보다 영원성 있는 체험을 나타내서 특수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운 문학은 참여 문학이 아닐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순수 문학이 아닐 수 없다. 문학 작품은 참여라든지 혹은 순수라든지의 극히 편협적이고 일반적인 그릇된 관점을 무시하고 그것의 기능, 즉 가장 절실하고 가장 참신한 체험을 표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학은 절실히 그리고 깊고 보편적인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박이문,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 문학의 특수성과 참여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하고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순수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해 서로 대립시킨 후 참다운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이라는 합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㉕ 논박적 방식 : 자신의 견해와 대립된 주장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옹호하려는 주장을 제시한다. **옹호하려는 주장이 주제이다.**

예문보기

요즈음 들으니, 내수사에서 불사(佛事)를 숭상한다고 합니다. 선왕조에서는 사사(寺社)의 전민(田民)을 모두 삭감하였었는데 지금 점차 환급하고 있고 각 산사(山寺)의 주자(住持)가 있는 곳에도 많이 회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능침(陵寢)같은 데도 중들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계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겠으나 그것이 이만저만 성치(聖治)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학관(太學館)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려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선비들의 습속이 경박해진 까닭에서이니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위에서는 각별히 사기(士氣)를 진작시키시어 **이단(異端)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배척해야 합니다.**

▶ 내수사에서 불사를 숭상하는 일의 잘못된 점을 들어 논박하면서 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 자연적 구성 :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피 나가는 전개적 구성.

㉡ 시간적 구성 :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서사적 사건의 구성에 주로 쓰인다. **서사적 의미를 찾아 주제로 잡아야 된다.**

예문보기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까운 지역 신도시에서 운전 미숙으로 길을 잘 못 들어 아무리 헤매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 찾아가려고 한참 기다리니 멋지게 생긴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기에 손을 들어 세워 우리가 찾아가는 지역의 방향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대답하더니 따라 오라는 것이었다. 인도하는 차를 따라가 보니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가던 방향의 반대쪽임에도 아무 말 없이 수고해 주고 다시 안내까지 철저히 해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르쳐 준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려는 데 인도해 주던 차가 경적을 울려 주면서 잘 가라고 손짓을 해준다. 그는 못 미더워서 끝까지 우리가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 신동우, 「진정한 친절」

👉 여기서는 서사적 의미인 **‘영국인은 진정으로 친절하다’**를 주제로 잡는다.

㉢ 공간적 구성 : 대상의 배열 순서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대상의 묘사에 주로 쓰인다.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속성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 한 변의 길이는 약 30미터, 높이는 13.5미터로 네 귀가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정면은 남서쪽으로 통구 평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현실(玄室)은 제3단의 뒷면을 바닥으로 하는 상자 모양의 방이며, 이 안에 두 개의 곡받침이 나란히 있고, 그 앞에는 연도가 있다. 고분의 꼭대기는 석회질과 자갈을 섞어 만들어 표면이 둥글게 지붕처럼 되어 있고, 가장자리 돌에는 같은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난간을 세웠던 자리처럼 보인다.

— 김원룡, 「한국의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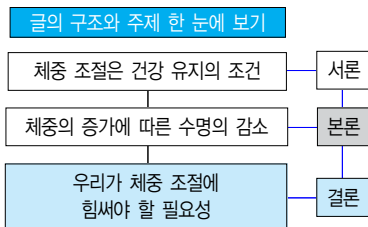
👉 여기서는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라는 문장을 주제로 잡는다.

㉣ 논리적 구성 : 쓰는 이의 의도대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배열하는 종합적 구성.

㉤ 단계식 구성 : 설명문, 논설문에 주로 쓰이며 3, 4, 5단의 구성법이 있는데 주제는 **결론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1. 도입	1. 도입	1. 주의 환기(화제에 주의를 모으는 단계)
		2. 과제 제기(문제를 제기하는 단계)
2. 전개	2. 전개	3. 과제 해명(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단계)
	3. 발전	4. 구체화(해결법을 구체화하고 그 유효성을 증명하는 단계)
3. 정리	4. 정리	5. 요약(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과 전망

예문보기



• 3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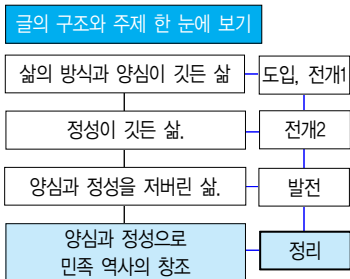
체중 조절은 건강 유지의 기본 조건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체중보다 10% 가량 가벼운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낮다. 평균 체중보다 10% 무거울 때 남자에게는 11%, 여자에게는 7%의 수명 감소율을 가져오며, 20% 무거울 때는 남자에게는 20%, 여자에게는 10%의 수명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실험 보고는 우리가 체중 조절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말해 준다.

▶ 체중 조절은 건강의 유지 조건이라는 서론으로부터 체중의 증가에 따른 수명의 감소라는 내용을 해명한 다음 체중 조절에 힘써야 할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문보기



• 4단 구성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누구도 탓할 것이 못 될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마음가짐만은 바르게 가질 것을 다져야 한다. 바른 마음이란, 곧 양심을 뜻한다. 욕망에 물들지 않고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발가벗은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성,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은 티없이 맑은 하늘처럼 깨끗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하늘처럼 맑기만 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양심만으로는 살아갈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되, 그 움직임에 정성을 깃들여야 한다. 제 아무리 살아가는 방식이 호화롭고 살아가는 방법이 떼떽하다손 치더라도 정성이 깃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트집이 나게 마련이고, 끝내는 양심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죄악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보다는, 자랑 따위는 시렁 위에 얹어 놓고 양심도 정성도 보자기를 덮어 감추어 버리고 오직 욕망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서글프기 짝이 없다. 서글프다기보다 적의 거래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나긴 민족의 역사로 보았을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상으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공들이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현재 이 땅의 국민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정성을 외면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병욱, 「정성과 금지로 행복을」

▶ 첫째 문단에서는 서론으로 삶의 방식을 말하고 곧바로 양심이 깃든 삶을 논하면서 전개1로 삼고 있다. 이어 둘째 문단에서는 정성이 깃든 삶을 전개2로 내세우고 셋째 문단에서는 양심과 정성을 저버린 삶으로 화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문단에서는 전체 내용을 양심과 정성으로 민족 역사의 창조라고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⑥ 포괄식 구성 : 글의 주지를 어느 위치에 배열하는가에 따른 구성 방식으로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등이 있다. 글 전체보다는 어느 부분에 주
로 쓰인다. 주제는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진술이 된다.

예문보기

- 두괄식 구성 : 첫머리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항상 남을 앞지르려고 기를 쓰는 우리들은 계절도 흔히 앞당겨 사는 꼴이 되곤 한다. 우리는 한 겨울에 봄을 맞이하고 봄이 되면 여름을 살기에 바쁘다. 우리는 한 여름에 가을맛이를 서둘러야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젠 겨울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일을 먹는 습관만 봐도 여실히 입증된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참외와 수박이 가장 맛있는 때는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그래서 참외와 수박은 한여름에 먹는 과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늘날 행세를 하려면 한여름이 되기 훨씬 전에 참외와 수박을 먹어 두어야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겨울에 참외와 수박을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쯤에는 그것들을 먹어야 낙오자가 아니다. 물론 때 이른 과일이 제 맛이 날리는 없지만,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면서까지 맛있는 과일 먹기를 원치 않는다.

— 김태길, 「앞만 보고 달리는 계절병」

➡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두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보기

- 미괄식 구성 : 끝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우리 사회에서는 남의 애를 칭찬하는 말로서, ‘그놈 대통령 감이다.’, ‘그 놈 장군 감이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런 말은 그 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는 말인지도 모른다. 아니,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거는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 꿈 뒤에 서려있는 것은 조선 오백 년 동안 맺혀 왔던 모든 백성들의 꿈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관리가 되는 것은 곧 일반 서민을 지배하는 계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백성들의 꿈이란 남보다 나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꿈은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권력 투쟁이다. 죽고 죽이고 유배당하는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이 그것을 실증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 지향의 꿈은 언제나 정치적 비극의 불씨가 되어 왔다.

— 김상태, 「꿈」

➡ 사례들을 앞에 내세우고 주장을 끝에 제시하고 있어 미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보기

- 중괄식 구성 : 가운데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치)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호뭇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이 가운데 있어 중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 보기

- **양괄식 구성** : 처음과 끝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처음과 끝에 형태는 다르나 뜻은 같은 문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를 향한 내적인 성찰과 세계를 향한 외적인 관찰은 인간 사고의 두 개의 극(極)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다. 내가 내게 관심을 가질 때 나는 필경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존한다 해도 그 실존은 언제나 세계와 더불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에 관해 던지는 물음과 세계에 관해 던지는 물음은 짝지어져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김열규, 「신화적 사고」

같은 의미의 주장이 앞과 뒤에 있어 양괄식 구성이 된다.

- ㉞ **무괄식 구성** : 글의 주제가 쉽게 드러나는 경우 별도로 주제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잡는다.

예문 보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군 할머니로 통하는 분이 있다. 가난한 농사꾼의 몸으로 아들을 잘 가르쳐서 고시 파스까지 시켜 그 아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호화 주택에 자가용까지 놓고 살기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부잣집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한 덕분이기도 했으리라. 어느 날 금이야 옥이야 하는 손자놈의 돌을 맞아 늙은 내외분이 나의 어머니처럼 보통이를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행여나 옷에서 먼지라도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 숨을 죽이며 발을 옮겨 다녀야 할 저택, 늙은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을까. 아장아장 손자놈이 걸어 나왔다. 얼마나 보고 싶던 핏덩이인가. 무심결에 “아이쿠 내 새끼야” 외치는 소리에 앞서 어느덧 손자는 할머니의 품 속에 안겨 있었다. 뒤늦게 나오다가 이를 본 며느리가 질겁을 했다. 시부모님께 대한 인사는 저만 두고 “저런 군이 옳으면 어쩔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아기를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다. “닭쫓던 개”란 이를 두고 한 말이겠다.

— 문도채, 「군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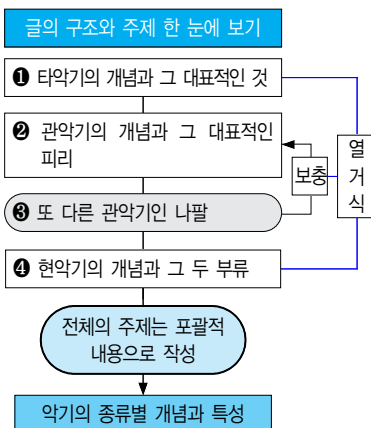
-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괄식 구성이 되고 주제는 서사적 의미를 작성하여 ‘도시 며느리는 시골 시부모를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라 할 수 있다.

- ㉟ **열거식 구성** :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구성. 문제간의 관련성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글에 주로 쓰인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삼는다.

예문 보기

타악기는 장고나 징과 같이,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그 대표적인 것은 북으로, 통나무, 바가지 등에 짐승의 가죽으로 때리는 면을 만들어 작대기나 손으로 치는 것이며, 모양도 우리나라의 절구처럼 된 것, 장고 모양, 향아리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의 신호용 북은 큰 통나무로 3미터 정도의 길이로 된 나무를, 속을 파고 껍질에 문양을 조각한 것도 있다. 북의 중앙, 전후, 좌우를 치면서 갖가지 음을 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북으로 표현된다.

관악기의 간단한 형태로는 버들피리처럼 입에다 나무 껍질을 갖다 대고 진동시키는 입피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로 된 통소나 피리가 있다. 짐승의 뼈로 만든 것, 짐승의 뿔로 만든



것, 조개 껍데기로 된 것 등도 있지만, 피리의 대부분은 대나무로 된 것으로 옆으로 부는 것, 앞으로 부는 것이 있으며, 길고 짧은 대를 한 줄로 엮어 하모니카와 같이 부는 것도 있고 코로 부는 것도 있다. 코로 부는 피리는 동남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또 다른 관악기로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긴 나무를 속을 비워 만든 것으로 길이가 짧고 음이 강한 것도 있고, 길이가 3미터 정도 긴 것도 있으며, 특히 티벳과 같이 고산 지대에서는 이렇게 긴 나팔을 산꼭대기에서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현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등과 같이 악기에 붙어 있는 현을 사용하되 다른 현궁(絃弓)으로 음을 내는 것과, 하프나 우리나라 가야금과 같이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해금과 같은 것으로 현의 수, 현궁, 그리고 모양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후자의 예로는 우리나라 월금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활과 같이 단순한 것도 있다.

— 이광규, 『문화인류학』

▶ 첫째 문단의 주제는 ‘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것’이고 둘째 문단의 주제는 ‘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피리’이며 셋째 문단의 주제는 ‘또 다른 관악기인 나팔’이다. 넷째 문단의 주제는 ‘현악기의 개념과 그 두 부류’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열거식 구성이다. 전체의 주제는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하여 ‘악기의 종류별 개념과 특성’이라 할 수 있다.

㉔ 점층식(점강식) 구성 :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성이 큰 것의 순서나 그 역순으로 배열하는 구성으로 문학 작품에 주로 사용된다. 중요성이 큰 내용을 담은 진술이 주제문이 된다.

예문보기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 이양하, 『신록예찬』

▶ 눈, 머리, 가슴, 마음 등으로 보아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점층적 구성이 되고 주제문은 ‘신록은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라 할 수 있다.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동태적 진술 — 서사, 과정, 인과 : 시간의 흐름을 개입시켜 진술
 정태적 진술 — 분석, 묘사 :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
 분류, 예시, 정의 :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
 비교, 대조, 유추 :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진술

㉕ 서사 : 일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이나 시간의 전개에 따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서사적 의미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오후 다섯 시 경에 일본 공사관은 포위 속에 빠져 버렸다. 총소리가 ‘탕!’ 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조선 군인의 발포다. 뒤미처 총소리가 콩 볶듯 일어난다. 공사관은 유리창이 깨어지고 벽이 뚫어지기 시작한다.

▶ 서사적 의미인 임오군란이 주제이다.

㉖ 과정 : 동일한 목표나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일련의 행동, 변화, 기능, 단계, 작용에 관계되는 원리로서, ‘어떻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진술하

는 방식. **목표나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우선, 김치를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두부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파, 마늘 등의 양념을 넣고 좀 더 끓인다.

➡ 목표인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주제이다.

- ㉞ 인 과 :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영향이나 힘, 또는 이러한 힘에 의해 초래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주로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사람들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바꾸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자,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고 그 결과 산은 더욱 험박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었다.**

- ㉟ 분 석 :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구성 요소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고전적인 시계는 태엽과 톱니바퀴,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태엽의 힘으로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바늘을 적당한 속도로 돌리게 된다. 이런 바늘의 움직임 정도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숫자판이 있고 숫자판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덮어놓았다.

- ㊱ 묘 사 : 대상의 형태, 색채, 감촉, 향기, 소리, 맛, 분위기 등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본떠서 독자가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게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전체적인 양상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서인도 제도는 따뜻한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바다에서 생긴 온난하고 습기가 찬 무역풍이 이 섬들로 불어간다.

- ㊲ 분 류 : 어떤 대상이나 생각들을 비슷한 특성에 근거하여 상위 개념으로 묶거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의 분류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간의 기원 문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두 학설이 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이 대표적이며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으로 아메바가 생기고 이에서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다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창조론이 대표적인데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 ㊳ 예 시 :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하위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구체화시키는 진술 방식. **예시에 대한 추상적 진술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우리의 몽유록(夢遊錄) 작품에는 꿈을 빌어 작자의 마음속 울분을 토로하거나 시대를 비판한 것이 많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슬픔과 억울함을 나타낸 '원생몽유록'과 병자호란의 참상과 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몽유록'이 그것이다.

- ㉠ 정 의 : 어떤 대상 또는 생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본질을 진술하는 지적 작용. 주로 정의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엉터리 약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돌팔이라고 말들을 한다. 돌팔이란 돌아다니면서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 지 정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듯 있는 그대로 일러주는 설명 방법, 주로 정의와 함께 사용된다. 대상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

- ㉢ 비 교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비슷한 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공통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연극과 영화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다루되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 ㉣ 대 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차이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희곡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제시하지만 소설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없지만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 ㉤ 유 추 : 어떤 공통된 근거에 따라 미지의 사실을 추론하는 진술 방식. 미지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생은 짧지 않다. 그리고 결국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마라톤도 긴 거리를 혼자 달리는 힘든 경기이다. 따라서 인생도 마라톤처럼 힘든 여정이라 할 수 있다.

- ㉥ 비 유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연결시켜 제시하는 진술 방식. 대상에 대한 비유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현대 사회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말한다면 현대 사회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가는 배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 방법은 있다



(1) 문단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자주 반복되는 말이 제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주 반복되는 말에 대해 ‘무엇이다’, ‘어떠하다’고 말하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② 비교, 대조, 열거로 이루어진 문단에서와 같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무관식처럼 나열되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 문장을 만들어 주제로 잡는다.
- ③ 구체적 진술의 문장과 추상적 진술의 문단에서는 추론 방식을 고려하여 연역법이면 구체적 진술을, 귀납법이면 추상적 진술을, 변증법이면 그 합을, 논박이면 대립된 주장에 대한 옹호하려는 주장을 주제로 잡는다.
- ④ 진술 방식에 따른 주제 표출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를 찾아본다.

(2) 전체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문단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문단의 주제문을 만든다.
- ② 각 문단의 주제문을 모아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하고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문을 찾는다.

(3)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작성된 주제문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확인한다.

(4)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주제문에 포함된 어휘들을 제시된 어휘들과 비교한다.

(5)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이나 구절과 관련된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표제는 중심 제재인가, 주제의 일반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 ③ 부제는 중심 제재를 풀이하는 말인가,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6)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방법

우선 설문에서 제시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추상적 진술 혹은 주제와 뒷받침 진술로 나눠 본다.

- ① 추론 방식에 따른 갈래(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논박)를 생각해 본다.
-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갈래(시간적, 공간적, 단계식,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를 생각해 본다.
-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갈래(서사, 과정, 인과,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유추)를 생각해 본다.
- ④ 혼동하기 쉬운 진술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비교와 대조** : 비교는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들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고, 대조는 같아 보이는 대상들의 차이를 밝히는 데 사용한다.

㉡ **비유와 유추** : 문장의 외형으로 볼 때, 비유는 대상 자체가 같다고 표현되며 유추는 속성이 같다고 표현된다. 비유는 공통된 속성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나 유추는 둘 이상, 많을수록 좋다.

㉢ **비교와 유추** : 비교는 두 대상의 특정한 점을 같다고 서술하는 것이며, 유추는 두 대상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 **정의와 지정** : 정의는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고 지정은 대상 자체가 드러난다.

🔵 “영터리 약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한다.”(정의)에서는 돌팔이의 속성(영터리)이 드러난다. 그러나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지정)에서는 카시오페아 자리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고 카시오페아 자리 자체만 드러난다.

㉤ **과정과 서사** : 과정은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서사는 그럴 수 없다.

🔵 9쪽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임오군란” 같은 사건은 되풀이 될 경우 공사관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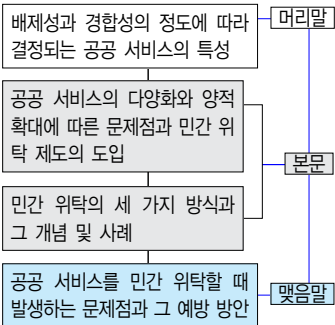
㉥ **분석과 분류** : 분석은 분해한 것이므로 종합해야 개체나 결과가 성립하는데 비해, 분류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나 결과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즉 분석은 잘 종합을 해야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으나 분류한 것은 곧바로 상위 개념에 속할 수 있다.

🔵 시계를 ‘분석’한 태엽, 톱니바퀴, 바늘 등은 잘 맞춰 종합해야 시계가 되지만, 시계를 ‘분류’한 벽시계, 손목시계 등은 그 자체로 시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 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제시하고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배제성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는 성질.
- 경합성 서로 맞서 겨루는 성질.
- 위탁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입찰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01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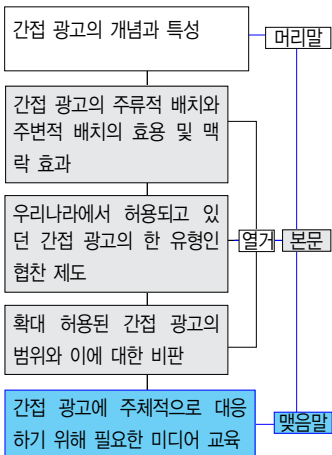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특성의 개념을 밝힌 다음 ‘국방과 치안, ‘공공 도서관’ 등의 특성이 적용된 예를 들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방법은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밝히 문장의 주제와도 관련이 없다.

✓ **해답** ②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힌 다음 그 방식과 효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휘·클리닉

•프레임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 '틀'로 순화.

0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는 첫째 문단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둘째 문단 :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의 효용 및 맥락 효과, 셋째 문단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던 간접 광고의 한 유형인 협찬 제도, 넷째 문단 : 확대 허용된 간접 광고의 범위와 이에 대한 비판, 다섯째 문단 : 간접 광고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 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첫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② 셋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③ 둘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④ 다섯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 **해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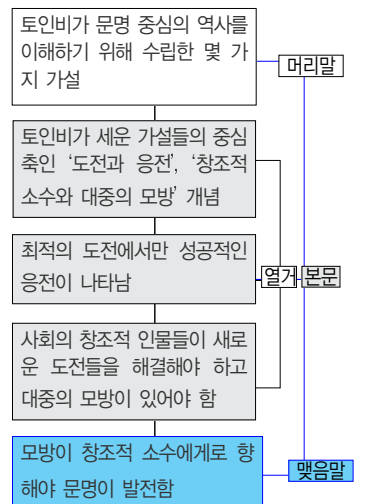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히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립한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을 소개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른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03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견해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작성해 보자. 첫째 문단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함, 둘째 문단 :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인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 셋째 문단 :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남, 넷째 문단 :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중의 모방이 있어야 함, 다섯째 문단 :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해야 문명이 발전함 등이다. 이를 토인비 견해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이며, 최적의 도전에 창조적 소수가 성공적·지속적으로 응전하고 대중의 모방이 창조적 소수를 향할 때 문명은 발생·성장한다.'라 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는 ①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모방도 두 갈래여서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 모방은 문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③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④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 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했다. 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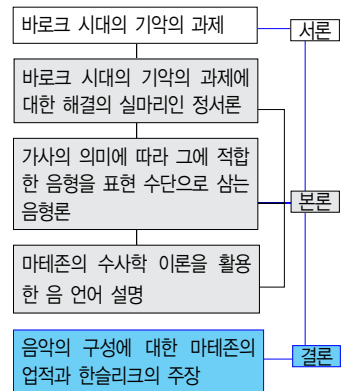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이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서론과 음형론 및 마테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크리닉

- 견지되어야: 어떤 견해나 입장을 굳게 지니거나 지켜야
- 수사학: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04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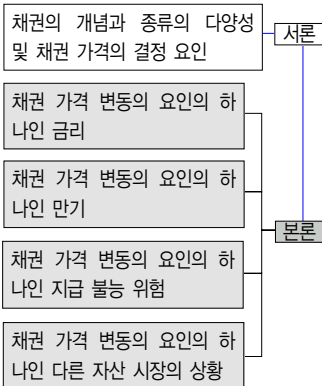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 둘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인 정서론, 셋째 문단: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음형론, 넷째 문단: 마테존의 수사학 이론을 활용한 음 언어 설명, 다섯째 문단: 음악의 구성에 대한 마테존의 업적과 한슬리크의 주장.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론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 전개 방식은 ③이 적절하다.

● **오답 배리기** ①, ②, ④, ⑤ 모두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채권의 개념과 종류를 밝히고 채권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유가 증권: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선호한다: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한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05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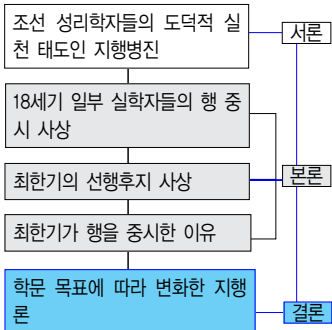
● 문항 분석 부분적인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다로 정답 찾기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의 방법을 말하는데 위 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이는 분석을 일컫는데 위 글에서는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둘째 문단에서 시중 금리를, 셋째 문단에서 만기를, 넷째 문단에서 지급 불능 위험을, 다섯째 문단에서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들고 있다. ② 이는 예시를 일컫는데 넷째 문단에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④ 이는 인과를 일컫는데 둘째 문단에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⑤ 이는 정의와 분류를 일컫는데 첫째 문단의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구절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다.

✓ 해답 ③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행론이 서로 다르게 발전한 이유는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물리(物理) : 물질의 이치.
 • 사리(事理) : 여기서는 사람 사이의 이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했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했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사리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06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 후지의 현대적 의미
-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 둘째 문단 : 18세기 일부 실학자들의 행 중시 사상. 셋째 문단 : 최한기의 선행후지 사상. 넷째 문단 : 최한기가 행을 중시한 이유. 다섯째 문단 :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 따라서 글 전체의 주제는 다섯째 문단의 주제인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④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② 한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중심 화제이나 그 의미를 밝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지행론의 상위 개념이어서 너무 포괄적이다.

✓ **해답**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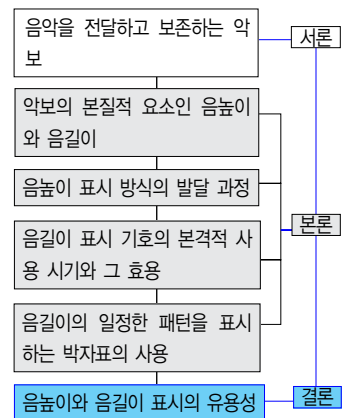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롱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 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롱가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에 쓰이는 음높이와 음길이표의 사용 기원과 발전 및 그 효용성을 구성 요소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삼위일체 : 1.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 즉 삼일. 2. <기독교>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07 위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단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술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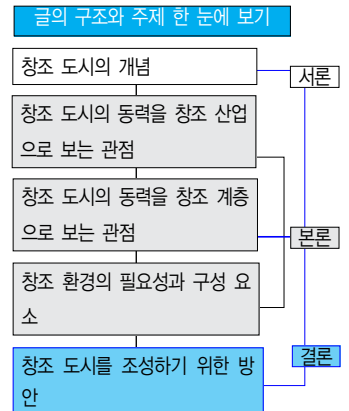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 둘째 문단 : 악보의 본질적 요소인 음높이와 음길이. 셋째 문단 : 음높이 표시 방식의 발달 과정. 넷째 문단 : 음길이 표시 기호의 본격적 사용 시기와 그 효용. 다섯째 문단 : 음길이의 일정한 패턴을 표시하는 박자표의 사용. 여섯째 문단 :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유용성. 이로 보면 위 글은 악보에 사용되는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사용 시기와 발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진술 방식이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 ▶ 창조 도시의 개념을 밝히고 그 동력을 서로 다른 두 관점으로 제시하고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를 소개한 다음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제고하는 : 이끌어 올리는.
- 역동적 : 힘차게 움직이는.

08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창조 도시의 개념
- ② (나):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 ③ (다):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 ④ (라):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⑤ (마):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각 문단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마)의 주제문은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이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의 주제문은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주제문은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주제문은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④ (라)의 주제문은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예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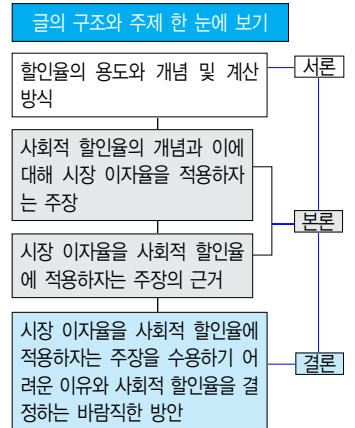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할인율의 개념과 용도를 소개하고 시장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 다음 이익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 타당성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09 위 글의 글쓰기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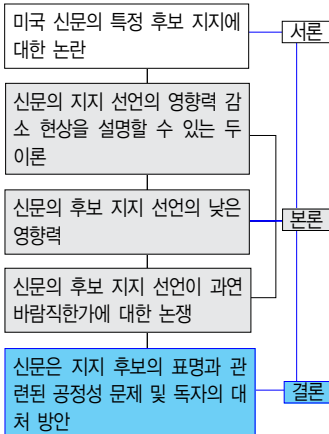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할인율의 개념과 그 예. 둘째 문단 :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과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제기. 셋째 문단 :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배경. 넷째 문단 :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은 ④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⑤ 모두 글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내용이다.

✓ **해답** ④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미국 신문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그것의 낮은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의 공정성 유지를 주장한 후 독자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지지 :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씀. 또는 그 원조.
- 표심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마음.
- 인지하다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 함의 :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 혜안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10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를 구성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미국의 많은 신문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둘째 문단 : 신문의 지지 선언의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문단 :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종합

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단 :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문단 :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로 보면 첫째 문단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둘째, 셋째 문단에서는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ㄷ :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ㄹ :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 예 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① 우리는 우리의 미술사에서 많은 보편적인 법칙들을 발견해내게 된다. 이 점을 미술의 표면적 현상인 양식사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선사 시대 미술 가운데 가장 저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미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암벽각화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통해 사실에서 추상으로 넘어가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국가가 완전히 정착한 뒤까지도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추상성은 다분히 남아 있게 되며, 완전하게 새로운 사실주의로 변신하게 되는 것은 삼국이 통일되던 그 전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연주의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대체는 역시 추상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물론 '보편적/추상적', '특수적/추상적', '보편적/구상적', '특수적/구상적' 등등이 서로 엇갈리면서 계기(繼起)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② 이렇게 본다면 한국 미술의 양식은 추상과 구상의 계기적인 발전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체(停滯)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느 나라이든 간에 다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추상과 구상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③ ①청동기 시대의 추상성과 신석기 시대의 구상성 같은 것 역시 당시의 사상적·사회적 영향으로 대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석기 시대에는 직접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먹던 형태가 지배적인 경제 상태였고, 여기에 따라 수렵·어로에 대한 신앙과 아울러 그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을 바위 같은 데다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겼기 때문에 구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내려오면, 농경이 보편화되어 이것이 지배적인 경제로 되었으며, 모든 사회 체제도 국가의 발생이라든가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하는 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 작가들의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활 기반이 안정화되고 사상의 상징화가 일어나면서, 미술도 장식화·양식화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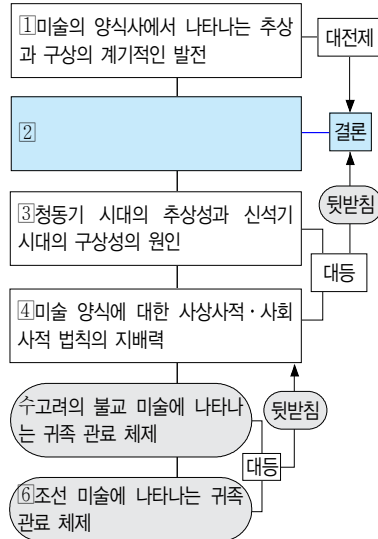
④ 그런데 이러한 양식은 시대적·사회적 연관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상사적·사회사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가령 통일 신라의 보편적 구상성의 양식은 국제적인 통일 왕국이 신봉하던 사회사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추세와 궤를 같이하던 통일 신라 미술의 주류는 세련되고 탄력적인 사실주의와 조화롭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한 것이다.

⑤ 통일 신라 이후의 고려에서는 귀족 관료 체제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교도 이러한 추세를 좇고 있으며, 불교 미술의 경향이라든가 회화나 도자기 같은 경우도 상징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불화(佛畵)나 상감 청자 등에서 보다시피 귀족적인 호화로움과 단아한 특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해킹

「한국 미술사의 특수성」, 문명대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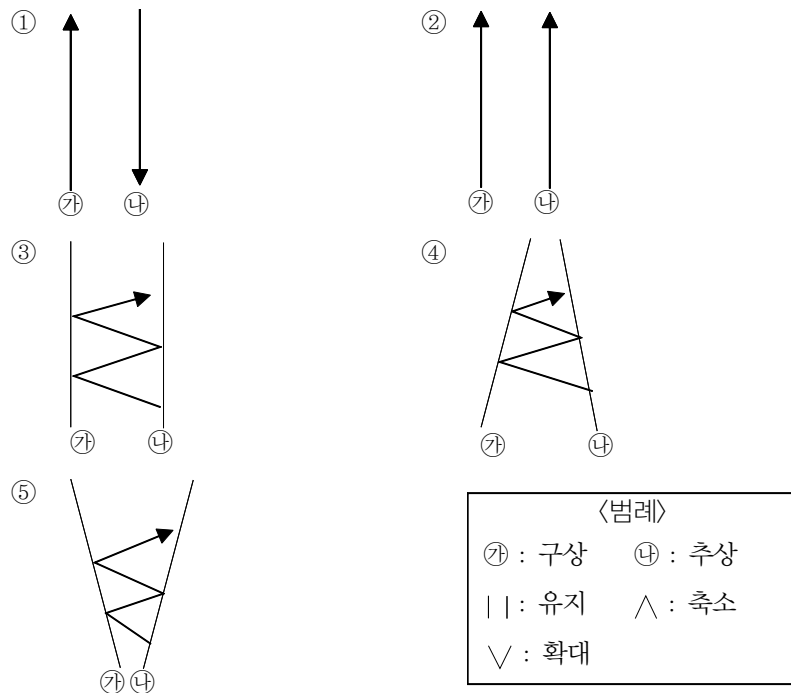
➤ 미술 양식사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여 한국 미술 양식사에서 추상과 구상이라는 보편적인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다음 시대별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계기(繼起)적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성질).
- 대두되다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머리를 쳐들고 나타나게 되다.
- 와중(渦中) ①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②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 궤 ①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이 난 길. ②일이 발전하는 정상적이며 본격적인 방향과 단계.
- 단아하다 단정하고 아담하다.
- 주류(主流) ①강물 따위의 원줄기가 되는 큰 흐름. ②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 '본류'로 순화.
- 문외(文意) 글의 뜻.

⑥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의 미술, 그러니까 수묵담채의 산수화나 사군자화 같은 회화라든가 단순·소박한 백자 같은 도자기 등이 크게 등장하여 미술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는 그들의 문의(文意)의 상징이 목적이었으므로 생략과 단순·소박미의 추상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도자기·문방구(文房具)·목기류(木器類) 같은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01 윗글에서 밝힌 한국 미술 양식의 발전 양상을 도식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2 윗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미술에 있어서 양식은 표면적인 현상이다.
- ② 지배적인 경제 상태가 수렵·어로였던 신석기 시대의 미술 양식은 구상성을 띠었다.
- ③ 작가들의 사상의 상징화가 일어난 삼국 시대에는 미술 양식도 보편적인 추상성이 대세였다.
- ④ 조선 시대의 도자기·문방구(文房具)·목기류(木器類) 같은 것도 대체로 추상 경향을 보인다.
- ⑤ 고려 시대의 불화(佛畵)나 상감 청자 등에서 나타나는 귀족적인 호화로움과 단아한 특징은 구상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03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사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ㄴ.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논박하고 있다.
- ㄷ. 대상의 통시적 변화 양상의 일반적 원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ㄹ. 글 전반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후반부에서 이를 일반화하여 논지를 수립하고 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04 ㉠의 전제는?

- ① 미술은 개인적 노력의 집합체이다.
- ② 추상성과 구상성은 미술의 특성이다.
- ③ 미술은 동시대의 사상적·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 ④ 청동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미술의 힘이 미약했다.
- ⑤ 사상적·사회적 영향이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유형모의 1-1]

01 ⑤ 02 ⑤ 03 ② 04 ③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㉔한국 미술의 양식에서 나타나는 추상과 구상의 보편성

01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도식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렇게 본다면 한국 미술의 양식은 추상과 구상의 계기적인 발전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한국 미술의 양식은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발전했다. ⑤도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진행할수록 그 폭이 확대되는 모양으로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구상이 발전하고 추상이 쇠퇴하는 모양이다. ② 구상과 추상이 서로 무관하게 발전하는 모양이다. ③ 구상과 추상이 발전 없이 교대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④ 구상과 추상을 오가며 진행할수록 그 폭이 축소되는 모양으로 쇠퇴의 의미를 담고 있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무관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통일 신라 이후의 고려에서는 귀족 관료 체제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교도 이러한 추세를 좇고 있으며'라는 구절에서 '이러한'은 '귀족 관료 체제로의 사회적 변화'를 지시하고 있으며 '불교 미술의 경향이라든가 회화나 도자기 같은 경우도 상징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불화(佛畵)나 상감 청자 등에서 보다시피 귀족적인 호화로움과 단아한 특징'은 추상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이 점을 미술의 표면적 현상인 양식사에서 살펴보기로 하자.'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신석기 시대에는 직접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 먹던 형태가 지배적인 경제 상태였고, 여기에 따라 수렵·어로에 대한 신앙과 아울러 그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을 바위 같은 데다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겼기 때문에 구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작가들의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활 기반이 안정화되고 사상의 상징화가 일어나면서, 미술도 장식화·양식화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을 전후하여 삼국 시대에는 보편적인 추상성이 아직까지 대

세를 잡고 있는데'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도자기·문방구(文房具)·목기류(木器類) 같은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이러한'은 '단순·소박미의 추상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시하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 : 여러 곳에서 사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례로 '즉 불화(佛畵)나 상감 청자 등에서 보다시피 귀족적인 호화로움과 단아한 특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란 구절이 있다. ㄴ : 시대별 미술 변화의 양상의 기본 원리를 '한국 미술의 양식은 추상과 구상의 계기적인 발전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둘째 문단에서 밝히고 있다.

● 오답 바꾸기 ㄷ : 필자의 주된 견해는 '미술의 표면적 현상인 양식사에서 미술에서 나타나는 많은 보편적인 법칙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인데 이와 상반된 견해 즉 '미술의 표면적 현상인 양식사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 낼 수 없다'란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 첫째 문단의 '여기에는 물론 '보편적/추상적', '특수적/추상적', '보편적/구상적', '특수적/구상적' 등등이 서로 엇갈리면서 계기(繼起)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대전제로부터 연역하여 '한국 미술의 양식은 추상과 구상의 계기적인 발전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지를 둘째 문단에서 밝히고 있어 논지가 전반에 나타나며 그 이후 사례를 들어 논지를 입증하고 있어 잘못된 표현이다.

04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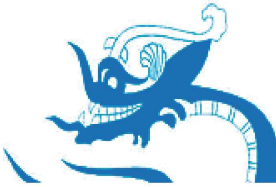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주장의 전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 드러난 주장을 100%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가 되는데 ㉠의 '청동기 시대의 추상성과 신석기 시대의 구상성'이란 말은 '미술'이란 말로 일반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 '미술은 동시대의 사상적·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란 말은 전제로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 개인적 노력으로 본다면 사상적·사회적 영향과 관련시킬 수 없다. ㉢, ㉣ 미술에 대한 사상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 없어 부적합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키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② 중국같이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 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歎息)한다.

③ 어찌하여 ㉠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찬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④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이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적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⑥ 조막만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여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⑦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흠이기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기는 어려우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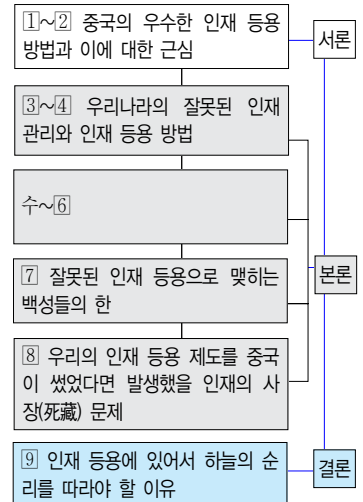
⑧ 옛날에 어진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 그 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범중엄(范仲淹)*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陳瓘)과 반양귀(潘良貴)*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지(司馬攸)*, 위청(衛青)*과 같은 장수와 왕부(王符)*의 문장도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⑨ 하늘이 났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

금제하 필자

「유재론(遺才論)」, 허균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중국의 우수한 인재 등용 방법을 서론으로 하여 우리나라 인재 등용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직분(職分) 직무상의 본분.
- 초야(草野) 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 궁벽한 시골을 이르는 말.
- 치적(治績) 잘 다스린 공적. 또는 정치상의 업적.
- 명망(名望) 명성(名聲)과 인망(人望)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조막 주먹보다 작은 물건의 덩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공업(功業) 큰 공로가 있는 사업.

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을 훌륭히 계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허균, 「유재론(遺才論)」

* 범중엄(范仲淹) : 북송(北宋) 때의 명신.

* 진관(陳瓚)과 반양귀(潘良貴) : 송나라의 충신들.

* 사마양저(司馬穰菑) : 제(齊) 나라의 병법가.

* 위청(衛青) : 한(漢) 나라의 장군임.

* 왕부(王符) : 후한(後漢)의 학자.

01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음엔 재능이 없어도 덕이 높은 사람에게 회사 대표를 맡겨야겠어.
- ② 그 사람은 인간 관계가 아주 좋으니까 대외 섭외를 담당하게 해야지.
- ③ 가난해도 양심이 올바른 사람에게 회사 살림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④ 옳지, 이번 승진 시험에는 업무 관련 시험을 보지 말고 인성 검사를 실시해야겠어.
- ⑤ 그래, 그까짓 학력이 무슨 소용이야. 인정을 베풀어야 될 그 자리엔 인덕이 있는 그 사람이 적임이야.



02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전체적인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천리(天理)에 순응해야 된다.
- ②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된다.
- ③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 ④ 인재를 신분 차별 없이 등용해야 된다.
- 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

03 ㉠에 대한 필자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것은?

- ①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흐야 어이홀고.
헐뜨더 기운 집의 의논도 흐도할샤.
뭇 지위 고즈 자 들고 헤뜨다가* 말려니.

— 정철

* 헤뜨다가 : 허둥대다가

- ② 공명(功名)을 즐겨마라 영욕(榮辱)이 반(半)이로다.
부귀(富貴)를 탐(貪)치 마라 위기(危機)를 뵈느니라.
우리는 일신(一身)이 한가(閑暇)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

— 김삼현

- ③ 산은 냇 산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주야(晝夜)에 흘은이 냇 물이 이실쏜야.

인걸(人傑)도 물과 궂흐야 가고 아니 오노매라.

— 황진이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흐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원천석

- ⑤ 풍상(風霜)이 섰거친 나레 꺾 피온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꺾듯 다마 옥당(玉堂)*에 보닛오니,
도리(桃李)야 꽃이오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

* 옥당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04 다음 <보기>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적절하게 비판한 것은?

| 보기 |

‘단독 엄마란 아버지 없이 엄마와 어린 아이들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는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 그 결과 나중에 비행 청소년이나 십대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들을 부모로 하여 태어난 자녀들은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 과학고교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이 학교는 최하층 계급의 흑인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단독 엄마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어느 곳보다 많았다. 이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한 결과 놀랍게도 흑인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대학 진학자가 거의 없던 이 학교에서 졸업생의 40~50%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또,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① 인재를 국내에서만 골라 쓸 필요는 없다.
- ②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 ③ 계층과 계급을 초월해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 ④ 인종과 계급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 ⑤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교육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유형모의 1-2]

01 ① 02 ④ 03 ① 04 ②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수~㉔ 과거와 출신 성분에 따른 등용의 문제점과 모순성

05 ①

● 문항 분석 부분적인 주장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통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①에서 재능이 없는 사람을 대표 즉 지도자로 쓴다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

● 오답 비루기 ②, ③, ⑤ 셋 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의 의미 즉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구절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④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어서 적절하다.

02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궁극적 주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윗글의 중심 제재는 인재이며 인재 등용의 문제점으로 신분의 제약을 지적하고 이와 무관하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⑤ 모두 부분적인 내용이다. ③ 인재 등용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일반화한 것인데 그 범주가 너무 넓다.

03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필자는 ㉠에 대해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①에서도 동량재 즉 인재를 좋게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오답 비루기 ② 부귀공명을 경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④ 둘 다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04 ②

● 문항 분석 새로운 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비판을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의 자료는 환경과 교육의 영향이 인종이나 출생 배경의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문에서는 인재는 하늘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기>의 자료로는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반론을 펼 수가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모두 윗글에 제시된 하늘이 인재를 낸다는 내용과 <보기>의 주제인 인재는 교육으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주위 경치에 감탄한 나머지 사진기 셔터를 열심히 눌러 대곤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인화된 사진을 보면 꿈결 같이 아름다웠던 경치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리고, 인물 뒤로 너무나 낮설고 지극히 평범한 풍경만 남아 있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에서 맛보았던 산수의 황홀한 인상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 사람의 눈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이며, 인간의 두뇌 역시 엄청난 고성능 컴퓨터이다. 눈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 순식간에 올려다보는가 하면 내려다보기도 하며, 광각렌즈처럼 한꺼번에 주욱 휘둘러보는가 하면 망원렌즈처럼 겹쳐진 봉우리 사이로 저 멀리 아른거리는 먼 산 풍경까지 비껴보기도 하며, 다양한 대상의 갖가지 모습을 정확히 포착한다.

다 이렇게 살펴본 주위 경관의 여러 모습은 또다시 대뇌 안에서 하나의 전체적 영상으로 합성되며 내용 또한 지적으로 정돈된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같은 물체라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데 이로부터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리고 대상의 거리가 판단됨에 따라서 실제 물체의 크기를 가늠하고, 또 보이는 일부 면의 형태로 미루어 입체적인 전체 모양을 상상하며, 가까운 물체의 재질을 기억해서 먼 곳에 있는 다른 물체도 실상은 같은 것임을 알아낸다.

라 더욱이 인간은 고성능 카메라라 장착된 초고속 컴퓨터 이상의 존재다. 즉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는 인간의 오감 전체를 통해서도 느껴지고 기억 속에 저장된다. 등산 중에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탄성을 발했을 때에 받는 인상 속에는 비단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등 조형 외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들려오는 바람소리, 차가운 물소리, 맑고 싱그러운 솔바람을 마셨을 때 코와 폐부에 느껴지는 상쾌함, 그리고 자욱한 물안개가 살갗에 닿는 촉촉한 느낌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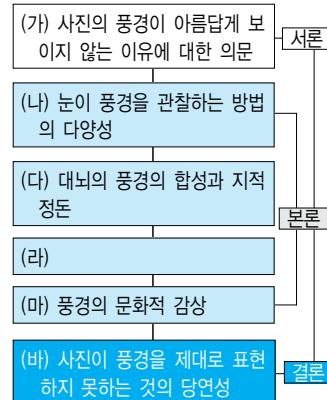
마 이렇듯 산이 주는 갖가지 느낌은 조형만으로 충분히 환기되기 어렵다. 게다가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감수성의 내용은 다만 오감으로 포착되는 현재의 감각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바 이처럼 복잡하고 종합적이며 고차원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산수의 심상을 단일 초점을 가진 사진기라는 기계가 그대로 옮겨오기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공제하 필자

옛 그림의 원근법, 오주석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눈이 풍경을 아름답게 보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사진이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



01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눈의 오묘한 조화
- ② 인간 대뇌의 작용
- ③ 눈과 카메라의 구조 비교
- ④ 사람이 풍경에 감탄하게 되는 과정
- ⑤ 풍경 사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풍경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 ② 사람은 멀리 있는 대상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 ③ 한 쪽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대상과의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다.
- ④ 사람이 실제로 산을 감상할 때에는 조형미 이외의 다른 느낌도 느낄 수 있다.
- ⑤ 초점이 여러 개 있는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사람에게 다양한 감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03 윗글의 주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상반된 논리를 통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의 공통점을 비교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대조되는 대상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중심 대상의 속성의 단점을 밝히고 있다.



[유형모의 1-3]

01 ⑤ 02 ⑤ 03 ⑤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라) 오감을 통한 풍경의 감상

01 ⑤

●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진의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 (나) 눈이 풍경을 관찰하는 방법의 다양성. (다) 대뇌의 풍경의 합성과 지적 정돈. (라) 오감을 통한 풍경의 감상. (마) 풍경의 문화적 감상. (바) 사진이 풍경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의 당연성. 이로 보아 글 전체의 주제는 사진이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는 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셋 다 부분적인 주제에 불과하다. ③ 구조를 직접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복잡하고 종합적이며 고차원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산수의 심상을 단일 초점을 가진 사진기라는 기계가 그대로 옮겨오기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구절은 다양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초점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종합적이며 고차원적인 과정’의 문제이므로 ⑤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눈, 오감, 대뇌, 문화적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② ‘대상의 거리가 판단됨에 따라서 실제 물체의 크기를 가늠하고’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같은 물체라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데 이로 부터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등산 중에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탄성을 발했을 때에 받는 인상 속에는 비단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등 조형 외적인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03 ⑤

● 문항 분석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윗글은 사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풍경을 직접 감상할 때의 여러 감각 기능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사진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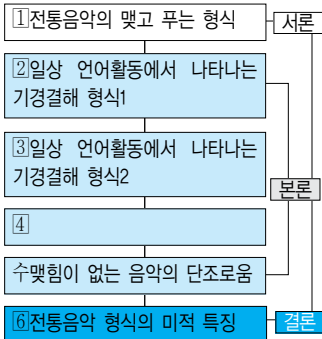
● 오답 바꾸기 ① 해결 방안은 없다. ② 귀납법을 의미한다. ③ 변증법을 의미한다. ④ 비교와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해 판자

한국 전통 음악의 미의식, 현행복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전통음악 형식의 미적 특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밝히고 있다.

이휘·클리닉

관행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 는 관례에 따라서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① 전통음악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의 예술 행위가 한마디로 ‘맺힌 한을 신명나게 풀어 해친다’는 의미로도 다가온다. ① 슬픔을 한 그 자체로 남겨놓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한 차원 높게 기쁨의 세계로 흥을 돋우며 신명을 일으킨다. 요컨대 ‘맺고 푸는’ 전통음악의 예술정신은 가락을 통해서, 혹은 장단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전개된다.

② 앞서 언급한 ‘기경결해(起景結解)*’식 장단 패턴에서 ‘결(結 : 맺음)’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는 관행이 꼭 음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언어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습관 가운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는 보통 네 번 정도 이어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뭔가 변화를 주는 습성이 있다. 장단에 있어서 ‘결’ 부분을 강하게 맺어주는 형식과 상통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A]

③ 가령 한 호흡에 읽힐 수 있는 문장이 네 편으로 나뉠 수 있는 경우, 그 글을 낭독할 시에는 자신도 모르게 세 번째 부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여기는 / 여고 앞 / 정류소 / 입니다”의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할 때, 까닭 없이 ‘정류소’ 부분이 강조되어 나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맺음’을 강조하는 심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한국말의 어순상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이치와 비슷하다.

④ 결국 한 장단은 한 호흡 구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발산이다. 호흡을 중시하는 전통이란 결국 ‘폐장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면서 곧 전통음악의 한 특징으로 자리한다. 자연스레 그 리듬을 인식하는 단위도 길고 느리다. 한편 서양음악은 ‘심장의 박동을 중시하는 문화’로 리듬단위가 전통음악에 비해 짧고 빠르다. 정상인의 1분간 맥박수가 바로 모데라토의 메트로놈 속도와 거의 일치한다. 한 인간의 사망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겐 ‘숨을 거두다’로, 서양에서는 ‘심장이 멎다’로 표현함이 자연스러움은 바로 이런 인식의 바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⑤ 신명이 펼쳐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한의 맺힘이 있다. 맺힌 것은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맺힘의 과정 없이 바로 신명 풀이가 나타나면 그 음악은 단조로울 수가 있다. 실제로 농악의 실내악화에 성공한 사물놀이의 경우, 타악기의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신명을 풀어헤치는 데 이처럼 흥겨울 수가 없다. 그러나 한바탕 공연이 펼쳐지고 난 뒤 웬지 공허한 느낌이 자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명 풀이에 앞서 전개되어야 할 ‘한 맺힘’의 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⑥ 이처럼 가락 속에 녹아나는 한과 장단 속에 피어나는 신명은 각각 맺힘과 풀어헤침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맺고-푸는’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음악은 느리면서 점차 빠르게, 어두우면서 점차 밝게, 슬프면서도 점차 기쁘게 상승하는 기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해낸다는 점에서 결국 뛰어난 음악미의 가치를 발휘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기경결해(起景結解) : 전통 장단의 틀로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의미.



01 윗글에 드러난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전통음악 공연과 관련된 표어를 작성한
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느리다가 빨라지는 뛰어난 우리 가락
- ② 생활 습관 반영으로 흥겨운 우리 음악
- ③ 숨에 맞춰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가락
- ④ 맺고 푸는 구성으로 신명나는 우리 음악
- ⑤ 슬픔과 기쁨이 하나 되는 신나는 우리 가락

0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물놀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농악기인 팽과리·장·장구·북으로 연주하는 음악. 이 음악은 1978년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연주단체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사당의 후예로 일찍부터 장구의 천동(天童)이라 불린 김덕수(金德洙)는 남사당패 동료들을 규합하여 리듬음악인 농악을 실내악 협주양식으로 개발하였다. 주로 연주하는 음악은 호남우도농악(湖南右道農樂)·작두름·설장고놀이·비나라·판굿 등이었는데, 농악의 생동하는 음악성과 치밀한 연주기교로 놀라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재즈·콘체르토·록·팝·오케스트라·현대무용음악 등 다른 장르와도 협연하였다. 현재 일본·미국·독일 등지에 여러 사물캠프를 가지고 있으며, 91년 7월의 세계종합예술제(WOMAD)에 초청되는 등, 사물이 어울려내는 소리는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다.

- ① 실내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음악입니다.
- ② 쇠와 북이 어우러져 음양의 조화를 잘 나타내는 음악입니다.
- ③ 땃힘과 풀어헤침의 과정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멋진 음악입니다.
- ④ 음악의 연주 속도가 너무 빨라 전통음악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음악입니다.
- ⑤ 신명 풀이에 앞서 전개되어야 할 한 땃힘의 장이 없어 공허한 느낌을 주는 음악입니다.

03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댁(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귀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
(小) 아리 팔족(八足) 大(대) 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흔 동난
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말고 게젯이라 헛렘은. - 작가 미상

② 불 아니 땔지라도 절로 익는 술과

여물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져 잘 걷는 말과, 길쌈 잘하는 기생첩과, 술이
쌔끗는 주전화, 양부로 낫는 검은 암소, 오오우 오오우 오오우 우후오오.
평생 이 다섯 가지 둘 양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 작가 미상

③ 불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하
며,

불가송아 불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불가송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흔가 헛노라. - 이정신

④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松骨(송골)미도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裡(백화원리)에 두루
미도 갖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갖고 짜히 펴 안즌 쇼로기도 갖
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데.

그러도 다 각각 님의 스랑인이 皆一色(개일색)인가 헛노라. - 김수장

⑤ 님이 오마 헛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논가 가는
가. 건넌 산(山) 바라보니 거머핍들 셔 잇거늘 져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껌뵈님의 님뵈곰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디
믄 디골희지 말고 위령충장 건너가셔 정(情)엿말 헛려하고 껌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 사흔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형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 헛쾌라. - 작가 미상

04 [A]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① 어이 어이 어이 어이

② 형님 온다 형님 온다

③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④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유형모의 1-4]

01 ④ 02 ⑤ 03 ⑤ 04 ③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전통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점

01 ④

● 문항 분석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한국인 예술 행위의 의미인 맺고 푸는 형식. 둘째 문단 : 언어습관에 나타나는 기경결해 형식. 셋째 문단 : 낭독할 때 나타나는 기경결해 형식. 넷째 문단 :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장단 대조. 다섯째 문단 : 맺힘이 없는 음악의 단조로움. 여섯째 문단 : 맺고 푸는 전통음악의 뛰어난 음악미.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여섯째 문단이며 그 음악미는 주로 신명으로 되어있으므로 ④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셋 다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⑤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사물놀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그렇지만 맺힘의 과정 없이 바로 신명 풀이가 나타나면 그 음악은 단조로울 수가 있다. 실제로 농악의 실내악화에 성공한 사물놀이의 경우, 타악기의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신명을 풀어헤치는 데 이처럼 흥겨울 수가 없다. 그러나 한바탕 공연이 펼쳐지고 난 뒤 웬지 공허한 느낌이 자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명 풀이에 앞서 전개되어야 할 '한 맺힘'의 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⑤와 같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④ 모두 사물놀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종합한 내용이 못된다.

03 ⑤

● 문항 분석 일반적 진술의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은 슬픔 속에 나타나는 해학을 의미할 수 있는데 ⑤도 입이 오지 않는 슬픔을 슬픔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통해 웃음으로 풀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슬픔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부러움의 태도만 드러난다. ③ 슬픔이 드러나지 않고 풍자만 드러난다. ④ 슬픔이 드러나지 않고 비유만 드러난다.

04 ③

● 문항 분석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통 네 번 정도 이어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뭔가 변화를 주는 습성이 있다.'라는 일반적 진술과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구조로 보아 aaba의 구조를 나타내는 사례이어야 되는데 ③도 동일한 구조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⑤ 모두 aaba의 구조의 예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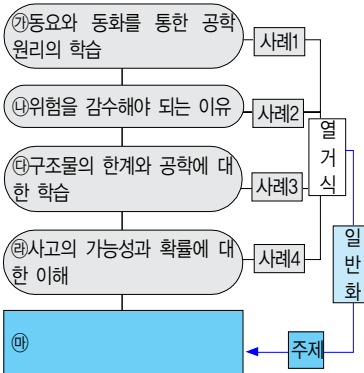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제와 필자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헨리 페트로스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공학의 원리를 습득하게 되는 일상 생활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공학 구조적 실패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토로하다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하다.

가

우리의 몸과 뼈는 기계나 구조물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는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듯이 자연의 힘에 대항하여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를 스스로 터득한다. 또한 우리는 두뇌에 있는 컴퓨터로 손과 다리가 움직일 경



로를 계산해서 최신의 개발 무기가 미사일을 가로챌 때보다도 더 정교하게 야구공이나 축구공을 잡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한때 공학 원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와 동화에는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나

우리는 믿음과 위험이 함께 널려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재앙을 가져오는 구조적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 삶을 사는 데 금세 익숙해진다. 우리를 바쁘게 받아내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무수한 아이들을 받아낸 다음 다리를 거꾸로 든 채 엄마에게 보여주고, 아이 아빠에게는 안아서 아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신생아실로 데리고 간다. 나는 내 아이들을 그렇게 옮겨 놓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틀림없이 언제 어디선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서투른 의사나 부주의한 간호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일 때든 부모일 때든 그런 끔찍스러운 작은 가능성에 매여 있을 수도, 매여 있지도 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①분만실에서 꼼짝달싹도 못했을 것이다. 대신 ②동요는 우리가 상상조차 꺼리는 일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다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집약해서 보여 주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블록 쌓기 놀이는 구조 공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장난감 블록은 돌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현대의 장난감 블록은 오랜 동안 실험을 통해 그 경험을 ③뼈대와 다리로 삼아 발전해 왔으며, 예전과는 달리 지금 아이들은 쇠와 나무와 플라스틱이 가진 한계를 이 장난감 블록으로 배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공학에 관해서 조금씩 배워 나간다.

라

우리는 물건들이 가진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물건을 너무 높게 쌓아 올리지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지도 않는다. 우리는 연필을 뽀족하게 깎아 쓰기를 좋아하지만, 부러질 만큼 세게 눌러 쓰지는 않는다. 우리는 ④부러뜨리지 않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커 가고 나이가 들면서 한창 때를 넘기고, 늙어 가면서 다시 뼈를 부러뜨리고 ⑤욕을 해댄다. 우리는 사고의 가능성

과 확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 ㉠ 우리는 몸, 전설, 동요, 어린 시절에 블록 장난감이나 모래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 이 모두가 구조적 실패는 인간 본성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아예 잊어버린 어른일지라도, 우리가 만든 구조물이 ㉡기념물이 되기를 원하지 어떤 실패작으로 남길 원하지는 않는다.



0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상반된 논리를 통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대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근거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⑤ 관점의 차이를 대조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02 윗글 전체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물은 진화한다. ②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 ③ 경험은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④ 인간의 본성은 실패를 받아들인다.
- ⑤ 삶의 지혜는 위험을 깨닫는 것이다.

03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장자장 아가야. / 나무 꼭대기에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려 떨어지지. / 그러면 아이도 떨어지네.
- ② 땅딸보가 담 위에 앉아 있네. / 땅딸보가 쿵 하며 떨어졌네.
왕의 모든 말과 부하들이 힘을 썼지. / 하지만 결국 땅딸보를 다시 올리지는 못했네.
- ③ 바보 마을에서 사는 똑똑이 세 명이 / 사발을 타고 바다로 갔다네.
만약 그릇이 더 견고했다면 / 내 노래는 더 길었겠지.
- ④ 다리를 만들자. 나무와 돌로 / 나무와 돌로 나무와 돌로
다리를 만들자. 나무와 돌로 / 내 어여쁜 아가씨.
- ⑤ 두 아이가 언덕으로 /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갔네.
한 아이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 한 아이는 나뭇굴레 팔을 다쳤네.

04 ㉠~㉡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원시 상태 ② ㉡ : 기초로
- ③ ㉢ : 공학적 원리 ④ ㉣ : 불평한다
- ⑤ ㉤ : 아름다운 구조물



[유형모의 1-5]

01 ② 02 ② 03 ④ 04 ⑤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구조적 실패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01 ②

문항 분석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람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두 엔지니어이며, 동요와 동화를 통해 공학 원리를 배운다. (나) 우리는 믿음과 위험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위험을 감수해야 성장할 수 있다. (다) 장난감 블록을 통하여 구조물의 한계와 공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라)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고의 가능성과 확률을 이해하게 된다. (마)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구조적 실패의 당위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로 보아 이 글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에서의 구조적 실패[공학 원리]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이 구조적 실패를 수긍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귀납법이 사용된 글이다. ②는 귀납법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오답 배리기 ① 이 글에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은 변증법적 논지 전개를 의미한다. ④는 분류에 의한 논지 전개를 의미하며 ⑤는 대조와 과정에 의한 논지 전개를 의미한다.

02 ②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전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에서는 위험과 실수의 상존성을 또 (다)에서는 구조물의 한계를 (라)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수요하게 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마)에서 구조적 실패를 인간 본성의 하나 즉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진술로 종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그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다. 그러므로 ②가 적합하다.

오답 배리기 ①은 (다)의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블록 쌓기 놀이는 구조 공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문장의 전제가 되고 ③과 ④는 (마)의 '우리는 몸, 전설, 동요, 어린 시절에 블록 장난감이나 모래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 이 모두가 구조적 실패는 인간 본성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라는 문장의 전제이다. ⑤는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이다. 따라서 모두 일부분과만 관련 있

는 내용이므로 부적합하다.

03 ④

문항 분석 추상적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없는 예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은 '끔찍스러운 작은 가능성에 매여 있을 수도, 매여 있지도 또 매여 있어도 안 되며'라는 구절과 '우리가 상상조차 꺼리는 일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끔찍스러운 실수나 실패를 노려한 것'이란 의미가 된다. ④는 다리를 놓자는 노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실수나 실패'의 예가 아니다.

오답 배리기 ①, ②, ③, ⑤ 모두 '끔찍스러운 실수나 실패'의 예이다.

04 ⑤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은 '인공물들이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대비를 한다'라는 진술로 보아 모든 것이 부서질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와 상반된 의도를 지닌 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조물'의 뜻이 된다.

오답 배리기 ㉡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라는 문맥으로 보아 아무런 문화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 즉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리라는 의미가 적합하다. ㉢은 경험을 '바탕으로'라는 뜻이므로 '기초로'로 바꿔 쓸 수 있다. ㉣은 구조물이 지탱할 수 있는 알맞은 힘을 가하는 법의 의미이므로 이를 일반화시켜 '공학 원리'라 할 수 있다. ㉤은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평한다'로 바꿔 쓸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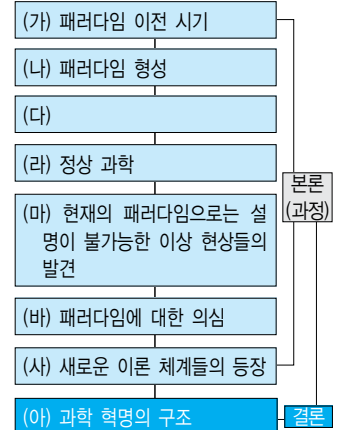
- 가** 패러다임 이전 시대에는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각기 자기 주장에 맞는 연구만을 진행시키며, 그 이론에 따라 각각의 세력이 결집되어 ㉠**반목하는** 시기를 이룬다. 물론 그것은 일반 사회의 권력 다툼과는 다른 것으로서, 과학자들이 아직 자연 현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해석과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 나**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어, 그 때까지의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폐기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 권위의 이론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간의 논쟁은 종식되고, 과학자들의 연구는 공통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단일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형성이다.
- 다**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 라** 이처럼 과학자들이 혼란을 벗어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정상 과학이란 학설의 ㉣**난맥상**이 정리되어 과학자들이 단일한 믿음과 확실한 신념으로서 연구에 매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 마** 어느 시기부터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처음엔 그러한 이상 현상은 관찰의 오류이거나 계산의 잘못 등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연구자의 무능으로 이해된다. 연구자는 하나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게 된다. 하지만 비슷한 실패가 거듭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 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상수를 조정한다거나 좀 더 정밀한 ㉤**기기**를 만드는 것으로서 그 이상 현상을 보완하려 하지만, 그 보완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될 때면 차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이 싹트는 것이다.
- 사** 기존 패러다임의 기초에 활동한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면 새로운 이론 체계들



문제해킹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임영태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를 순환 과정적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반목하다 서로 반대하다.

종식되다 끝나다.

일목요연하다 한 번 보아 한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다.

구축하다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

난맥상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의 연구 방법과 관점들이 대규모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며 밑바닥의 개념 체계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자는 그가 속한 패러다임을 통하여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과학 체계를 바꿈으로써만 가능하다.

- 아) 기존의 과학 체계와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혁명이다. 그것이
 Ⓐ 과학 혁명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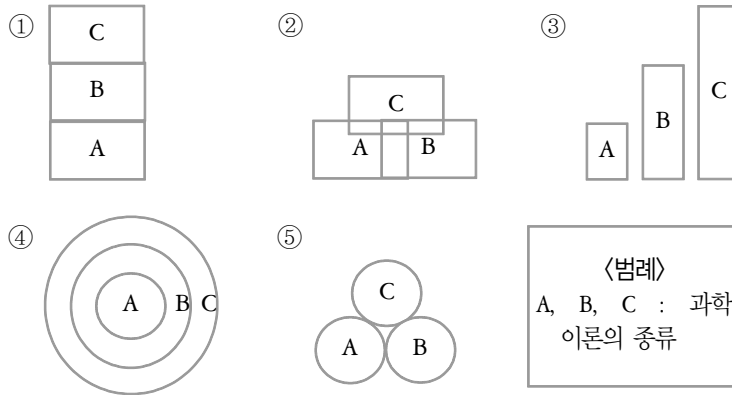
01 다음 중 뒷글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과 같은 것은?

- ① 장군충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
- ②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우선, 김치를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두부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파, 마늘 등의 양념을 넣고 좀 더 끓인다.
- ③ 고전적인 시계는 태엽과 톱니바퀴,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태엽의 힘으로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바늘을 적당한 속도로 돌리게 된다. 이런 바늘의 움직인 정도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숫자판이 있고 숫자판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덮어놓았다.
- ④ 우리의 몽유록(夢遊錄) 작품에는 꿈을 빌어 작자의 마음속 울분을 토로하거나 시대를 비판한 것이 많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슬픔과 역울함을 나타낸 ‘원생몽유록’과 병자호란의 참상과 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몽유록’이 그것이다.
- ⑤ 인간의 기원 문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두 학설이 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이 대표적이며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으로 아메바가 생기고 이에서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다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창조론이 대표적인데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02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 : 대립하는 | ② ㉡ : 광범위하게 |
| ③ ㉢ : 구성한다. | ④ ㉣ : 체계가 서지 않은 모습 |
| ⑤ ㉤ : 기구와 기계 | |

03 윗글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모의 1-6]

01 ② 02 ② 03 ③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다) 패러다임의 정착

01 ②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한 글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윗글은 '패러다임 이전 시기→ 패러다임 형성→ 패러다임의 정착→ 정상 과학→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상 현상들의 발견→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 새로운 이론 체계들의 등장'의 순으로 과학 혁명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②도 김치찌개를 끓이는 과정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묘사. ③ 분석. ④ 예시. ⑤ 분류.

02 ②

● 문항 분석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일목요연하다는 뚜렷하다란 의미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③, ④, ⑤ 각각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03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현상을 나타내는 도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자기가 의존해 왔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다.'란 말과 '다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것이다.'란 말로 보아 과학 혁명의 구조는 새로운 이론으로 옮겨 가면 발전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③에서 A, B, C는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이론으로 옮겨감을 나타내고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은 발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①, ④, ⑤ 셋 다 누적의 개념이다. ② 공통점을 지닌 누적의 개념이다.